

한국어의 표현 양상

조일영

국어로 생각하고 국어로 표현하는
우리 민족의 말 표현 방법들에 대한 관심

역락



조일영(趙一英)

벽암(碧巖) 두어헌(竇漁軒) 덕포(德浦)

1953년 10월 15일(음) 서울 출생

1979.02 고려대학교, 학사

1985.02 고려대학교, 석사 「국어 보문소 연구」

1995.02 고려대학교, 박사 「국어양태소의 의미기능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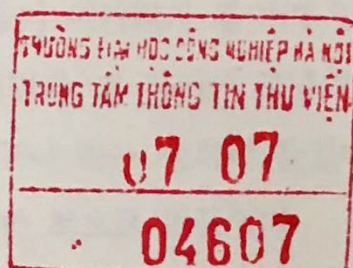
한국어의 표현 양상

HANOI UNIVERSITY OF INDUSTRY

KOREAN DEPARTMENT

한국어의 표현 양상

조 일 영



역락

머리말

지난 세월 집필한 논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만 어쭙잖은 연구들이라고 여기고 잊고 있었다. 그 자리에 그냥 있겠거니 하다가 문득 나중에는 흔적도 없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게 남아 있는 것들만 모아서 급히 한 책으로 만들었다.

돌아보니 주로 의미론 분야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석사논문 주제는 국어보문소연구로 하였지만 박사논문 주제는 선어말어미의 양태의 미기능연구이었다. 그러나 26년간의 대학 강단에서 교육과 행정 일을 병행하느라 한 가지도 집중하지 못했다. 박사논문 제출 후에는 양태의 미와 관련된 여러 분야를 다루고자 하는 포부를 가졌으나 마음만 앞서고 실천에 옮기지 못하다가 정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국어의 여러 의미현상들을 쫓기듯이 이것저것 건드려 보았지만 요약해보면 결국 국어로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한 관심으로 귀결되지 않는가 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석사 때의 국어보문소에 대한 관심이 박사 때의 양태소의 의미기능으로 옮겨간 것도 그런 흐름에서 나온 듯싶다.

이 책에서는 1부에서 양태의미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양태의미 표현에 대한 연구들을 실었고 2부에서는 지명과 어휘들의 의미 추적을 통해 한국인들의 사물에 대한 인식내용의 표현방식을 고찰하는 연구들을 실었다. 3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교육과정별 국어교과서들을 문

체론적 관점에서 정리하여 통계적 방법으로 다룬 일련의 논문들을 실었다. 4부에서는 그 외의 논문들 중에 조사에 대한 연구와 북한의 언어 정책변화를 다룬 논문을 실었다.

이제 교수직을 끝내려는 마당에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는 것은 지도 교수이신 우운(于雲) 박병채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석사논문 작성 때부터 종내는 박사논문 작성 때까지 선생님께 염려를 끼친 일이다. 다행히 于雲 선생님에 이어 小石 성광수 선생님께도 깊은 은혜를 입어 대학에서 정년까지 하게 되었으니 두 분 선생님께 받은 은혜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다. 한 눈 파는 일이 많아서 아마 기대도 하지 않으셨으리라 짐작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든 연구자가 생각대로 뛰어난 연구 업적을 내놓는 것만은 아닐 것이라는 마음가림의 위안으로 정리라도 하는 것이 도리이겠다 싶어 이 논문집을 엮어낸다.

재직한 학교가 사범계이다 보니 대부분의 연구가 국어교육과 관련지어지지만 그 와중에도 나름대로 내용학의 굴레를 벗어난 것 같지는 않다. 이리저리 방향을 틀어보았지만 결국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은사님들로부터 받은 영향과 당시 열정적으로 공부하는데 매몰되었던 국어학 전공 동료, 선후배들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듯하다. 그래서 내 공부의 터와 평생의 생각거리를 마련해 주신 우운 선생님과 약천(若泉) 김민수 선생님, 소석 성광수 선생님 혜당(惠堂) 박영순 선생님 등 은사님들의 은혜와 늘 곁에서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부추겨주었던 한국어학회 선후배 회원들의 우애에 감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평생 옆에서 무관심을 가장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매의 눈으로 지켜봐 준 서동숙 여사의 은공,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돌봐주셨던 처가의 장인과 장모님, 내 인생의 기준점이 되셨던 동덕의 춘강 할아버님, 외로운 내 삶의 후견인을 자처해주신 숙

부, 숙모님은 쉽지 않았던 내 삶의 여정에서 큰 은인들이었다. 그리고 작고하신 나의 아버님과 어머니는 지금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들이다. 보석같은 나의 세 딸들 또한 내 삶의 동력의 원천이었다.

돌이켜 보면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란 게으르고 둔한 내게 과분하고 부끄러운 일이었다. 대학부터 대학원까지 은사이셨던 우운 선생님께서 지금의 나를 보셨다면 혀를 차셨을 것이다. 그래도 아직까지 국어학을 버리지 않고 버티고 산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셨을 듯도 하고 혹은 제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흡해서 치지도 외하셨을 지도 모른다.

솔직히 말하면, 과거 젊었을 시절 내가 닮고 싶지 않았던 교수의 모습으로 퇴장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에 두렵기도 하다. 그러나 내 나름으로는 내가 지닌 재주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한 편씩 쓴 논문들인 것만은 맞다. 초라한 모습이더라도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끝으로 지난 세월 대학 강단에서 이런저런 일들에 휩쓸리면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글들이 또 하나의 나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 부록에 실었다. 지금 보면 협소하고 유치해 보이긴 하나 그것 또한 나의 지나온 삶의 궤적이라고 생각하니 여기 끝자락에 올려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었지만 계속 뒷덜미를 잡아끄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너그러이 양해를 바란다.

이제 연구실을 떠나려고 하니 회한만 앞서는 것을 어쩔 수가 없다. 그렇더라도 이제 와서 어찌겠는가? 내게 주어진 천성과 재주 그리고 여건이 그뿐인 것을!

2018년 12월 14일

필자 조일영

제 1 부 양태 표현

1장 ‘-았’의 양태적 의미와 기능에 대하여 / 13

2장 현대 한국어의 시간인식 양상 연구 / 37

- 시간관련 양태부사를 중심으로

3장 한국어 짐작 추측의 인식양태 고찰 / 63

- 구 구성형식의 표현을 중심으로

4장 한국어 양태소의 담화인지 기능에 대한 고찰 / 93

- ‘-네’, ‘-군’, ‘-지’를 중심으로

제 2 부 어휘 표현

1장 육류 명칭고 / 121

- 소고기와 돼지고기 명칭을 중심으로

2장 악기 연주동사 의미 연구 / 147

3장 지명 표기 연구에 대한 일고찰 / 167

- 월탄리 지명과 관련하여

4장 ‘동막’ 지명의 형태의미론적 고찰 / 187

제3부 문체적 표현

- 1장 한국어 교육에서 텍스트 자료 수준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 217
- 양적·질적 이독성 공식 개발을 중심으로
- 2장 교과서의 문체적 양상 변화 고찰 / 287
- 중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의 비문학지문을 중심으로
- 3장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문체 변화 양상 / 325
- 초등학교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 4장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급간 문체 변화 양상 고찰 / 355
-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 5장 초기 교육과정기 국어 교과서 문체 분석 / 387
-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 6장 외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어 시간표현 선어말어미 고찰 / 413
- 중국인 학습자들을 중심으로
- 7장 중국 조선족 중·고등학생들의 조선어 작문에 나타난
중국어 침투 양상 및 원인분석 / 437
- 중국 길림성과 흑룡강성을 중심으로
- 8장 중국 2016년 개정 「조선말 띄어쓰기」의 변화 내용과
남북한 현행 띄어쓰기 규정 비교 / 471

제4부 기타 표현

- 1장 ‘NP로’의 의미역 / 511
- 2장 북한의 언어정책 변화 고찰 / 529

참고문헌 · 566

[부록] 칼럼 모음 · 594

한국어의 표현 양상

초판1쇄 인쇄 2018년 12월 21일

초판1쇄 발행 2018년 12월 31일

지 은 이 조일영

펴 낸 이 이대현

펴 낸 곳 도서출판 역락

책임편집 임애정

편 집 이태곤 권분옥 홍혜정 박윤정 문선희 백초혜

디 자 인 안혜진 홍성권 김보연 박민지

마 케 팅 박태훈 안현진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46길 6-6 문창빌딩 2층(우 06589)

전 화 02-3409-2060(편집), 2058(영업)

팩 스 02-3409-2059

전자메일 youkrack@hanmail.net

홈페이지 www.youkrackbooks.com

등록번호 1999년 4월 19일 제303-2002-000014호

정가는 뒤표지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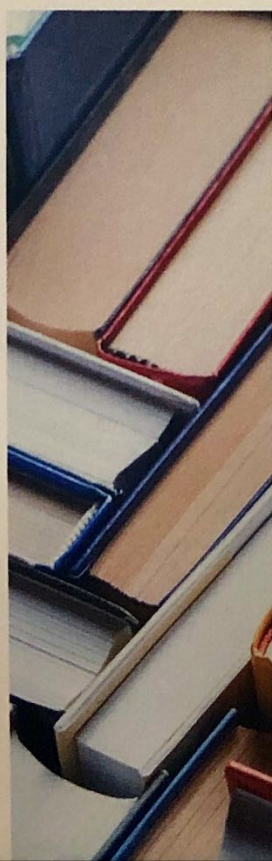
ISBN 979-11-6244-364-4 93710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말 표현 방법들에 대한 관심

필자가 그동안 연구한 분야는 주로 의미론 분야이다. 석사논문 주제는 국어보문소연구로 하였지만 박사논문 주제는 선어말어미의 양태의미기능이었다. 그러나 26년간의 대학 강단에서 교육과 행정 일을 병행하느라 한 가지도 집중하지 못했다. 박사논문 제출 후에는 양태의미와 관련된 여러 분야를 다루고자 하는 포부를 가졌으나 마음만 앞서고 실천에 옮기지 못하다가 정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국어의 여러 의미양상들을 쫓기듯이 이것저것 건드려 보았지만 요약해보면 결국 국어로 생각하고 국어로 표현하는 우리 민족의 말 표현 방법들에 대한 관심이 의식 속에 있었던 듯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석사 때의 국어보문소에 대한 관심이 박사 때의 양태소의 의미기능으로 자연히 옮겨간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가 생각을 말로 표현할 때 주위의 여러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게 되며 그 결과가 우리의 삶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정가 55,000원



ISBN 979-11-6244-364-4